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8일 화요일 음 7월 27일 (4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 낮 최고기온은 28℃로 예상된다. 당분간 해안가 너울과 풍랑이 강하겠다. 내일 오후부터 강풍에 유의해야겠다.

파고 1.0-2.0m

파고 1.5-2.5m

파고 1.0-2.0m

파고 1.5-2.5m

파고 1.0-2.0m

파고 1.5-2.5m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3/29℃

모레 맑음 22/29℃

월드뉴스

독일 극우 정당 AfD 옛 동독 주의회 선거 압승

급진좌파 정당과 연정 가능성

6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40%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주정부 집권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AfD는 이번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단독으로 39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83석 중 42석)에 불과 3석 모자랐다.

AfD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못 하더라도 소수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AfD와 연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급진좌파 자라바 겐크네히트동맹(BSW)이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



한호하는 AfD 당원들. 연합뉴스

는 이민 강경책과 대러시아 유화 정책에서 AfD와 뜻이 맞고,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당들의 방화벽 원칙에는 부정적이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방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공영방송 지원 축소 등을 약속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자발적 시민 순찰대'를 만든다거나 난민 집안 학생은 학업을 분리한다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도 내걸었다.

연합뉴스

한라칼럼



김 숙
전 주유엔 대사·명에 제주도민

지난주 히말라야의 내륙 부탄왕국을 다녀왔다. 부탄은 3만8000km²의 산악 지형과 숲으로 이뤄진 인구 80만의 작은 나라다. 수도 팀푸는 해발 2500m에 위치해 있고, 방문 중에 한라산 보다 훨씬 높은 해발 3150m까지 올라가 봤다. 부탄 정부가 환경과 전통문화 보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워낙 외진 곳이라 관광객의 여행이 쉽지 않은데, 필자는 1988년 초 주인도 대사관 영사로 근무하던 당시 방문한 이래 39년 만에 다시 방문하는 호사를 누렸다.

부탄에서 바라본 행복

첫 방문 때 사람들의 복장과 풍광을 보며 마치 천년왕국 신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 것 같은 신기한 역사 충격을 경험한 기억이 남아있다. 이번 방문에서도 부탄의 독특한 건축 양식, 전통 복장, 국교인 금강승 불교에 입각한 문화와 가치 등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부탄 정부가 국가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총생산(GNP)보다 중요한 가치로 놓고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으로 삼는 점이었다. 그래서 국토의 60% 이상을 숲으로 유지하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며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탄소배출량이 마이너스다. 부탄엔 신호등도 없고, 산악 지형임에도 터널이 없는게 국가총행복 지수를

낮춘다고 공사가 불허됐다고 한다.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정부가 정한 행복 개념에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개 정부 부처 중 국가행복청이 최선임 부서다. 제주의 탈탄소 환경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부탄과 제주는 내륙국과 섬이라는 지리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묘한 동지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꼈다. 제주엔 도둑, 거지, 대문이 없어 3무(無)라고 부르지만, 부탄엔 주변 국가들에서 보이는 거지와 범죄가 없다. 살인 사건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생태 문화적 환경이 외부와 크게 다르며, 언어·풍습·공동체 문화가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는 점도 유사하다. 섬으로서 제주만의 방언이 있지만, 산악 지형으로 옆 마을과 교류가 힘들었던 부

탄의 방언은 산 하나 넘으면 언어 자체가 달라질 정도였다고 한다. 부탄인들이 영어를 유달리 잘하는데, 종가어(語)가 공용어지만 서로 다른 수십 가지의 언어 때문에 영어가 공통적 소통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적 뿌리를 간직한 채 자연과 하나가 되어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함이 제주 해녀에게서 느끼는 삶에 대한 질박한 진지함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

다만 행복도 높은 부탄 국민에 비해 소득이 열 배나 많은 우리의 행복도는 어떻게 비견하기 망설여진다. 국민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46세의 국왕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2년 전 방문했던 한국을 기억하며 AI 등 배울 점이 많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말에 다음번엔 제주를 꼭 방문해 볼 것을 권유했다.

열린마당

제주에서 여는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축제



오 정 은
제주도 전국체전기획과 체전운영팀장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1일 막이 오른다. 이번 개회식은 단순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다. 제주가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고, 전국의 선수와 국민이 하나 되는 출발의 장이다.

개회식의 주인공은 단연 선수들이다. 수많은 땀과 노력의 시간을 지나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열정을 무대에 담아낸다. 승패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 그 자체를 존중하며, 그 도전에 보내는 응원은 관객 모두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간다.

또한 개회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사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다. 제주의 청정자연과 독창적인 문화, 따뜻한 공동체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포용과 연대의 장을 연출한다.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도전과 이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져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체전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체전의 모습을 선보인다. 그러나 화려한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것. 그것이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다.

제주에서 시작되는 이 첫걸음이 우리 사회의 포용과 연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 유통의 길을 넓히다



이 행 주
제주시 감귤유통과

농업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제 농업정책도 생산단계에 머물지 않고 유통·판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품질 감귤 생산과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와 소비자 판로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품질과 상품성을 높이고, 산지에서 선별·출하 경쟁력을 갖춘 뒤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도록 생산-선별-

유통-판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에서 소비자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신선도, 산지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산지와 소비시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유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제주시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수도권 등 소비자 유통매장에서 판촉·홍보·시식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구축해 온 소비자 농협 등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직거래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판촉이 실제 거래와 재구매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판매망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OC MIC ITC ITE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노인성,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와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제주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광양 한국병원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